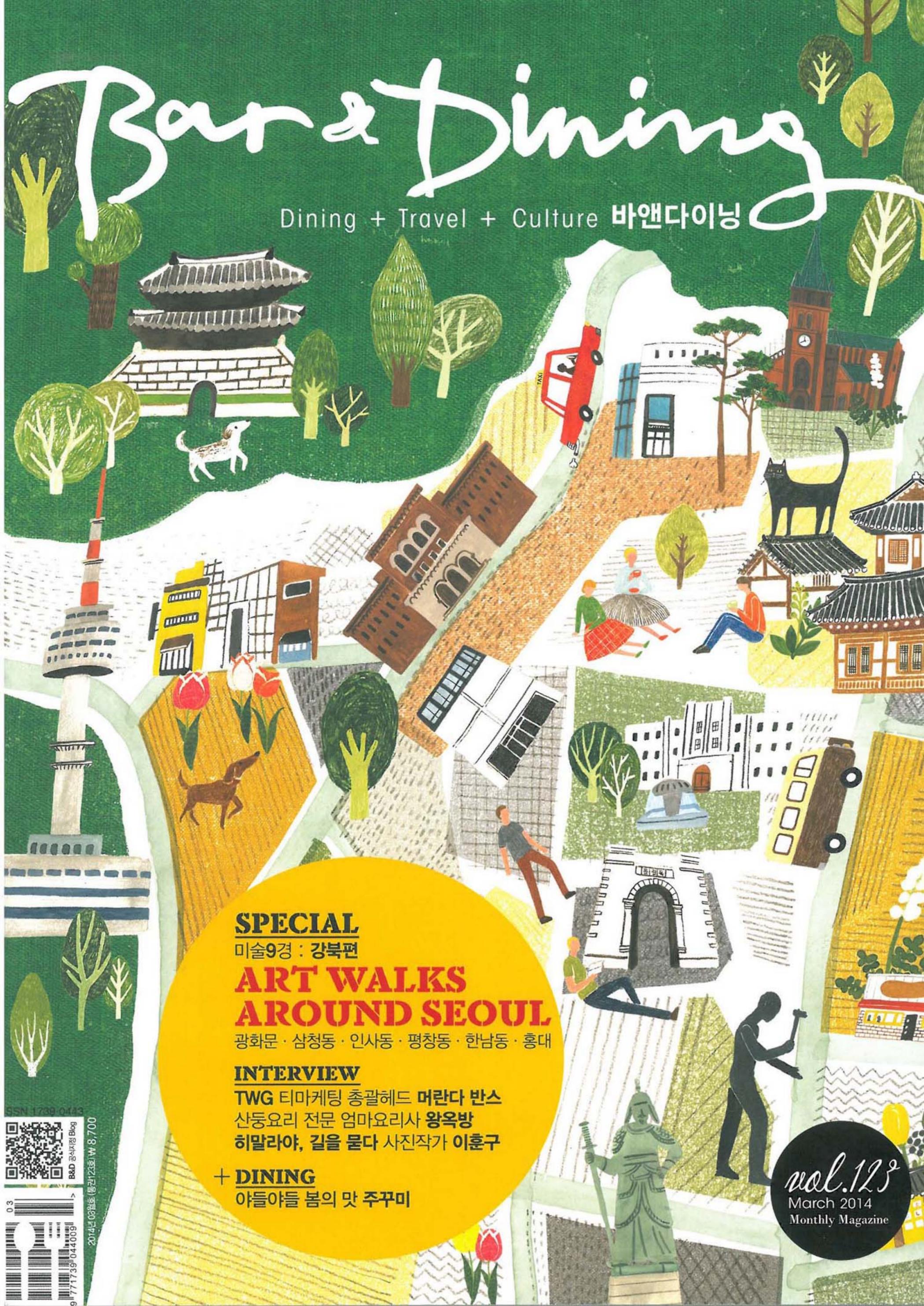


# Bar & Dining

Dining + Travel + Culture 바앤다이닝



## **SPECIAL**

미술9경 : 강북편

## **ART WALKS AROUND SEOUL**

광화문 · 삼청동 · 인사동 · 평창동 · 한남동 · 홍대

## **INTERVIEW**

TWG 티마케팅 총괄헤드 머란다 반스  
산동요리 전문 엄마요리사 왕옥방  
히말라야, 길을 묻다 사진작가 이훈구

## **+ DINING**

야들야들 봄의 맛 주꾸미

vol.123  
March 2014  
Monthly Magazine

ISSN 1739-0443



B&D 공식이정 Blo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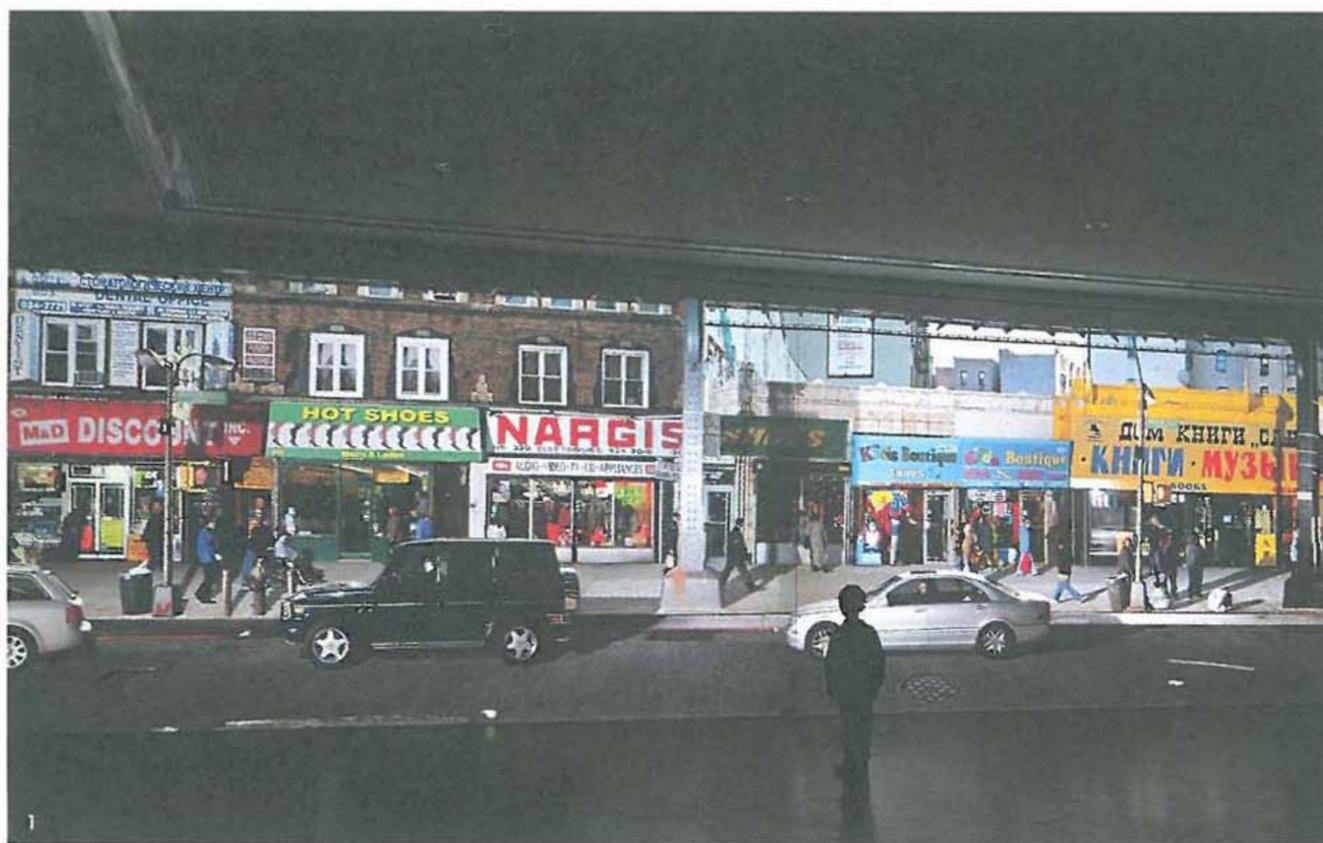
9 771739 044009

2014년 03월호 (통권123호) ₩ 8,700

05

## 플라토 미술관

로맹의 작품을  
위해 설계된  
글라스 파빌리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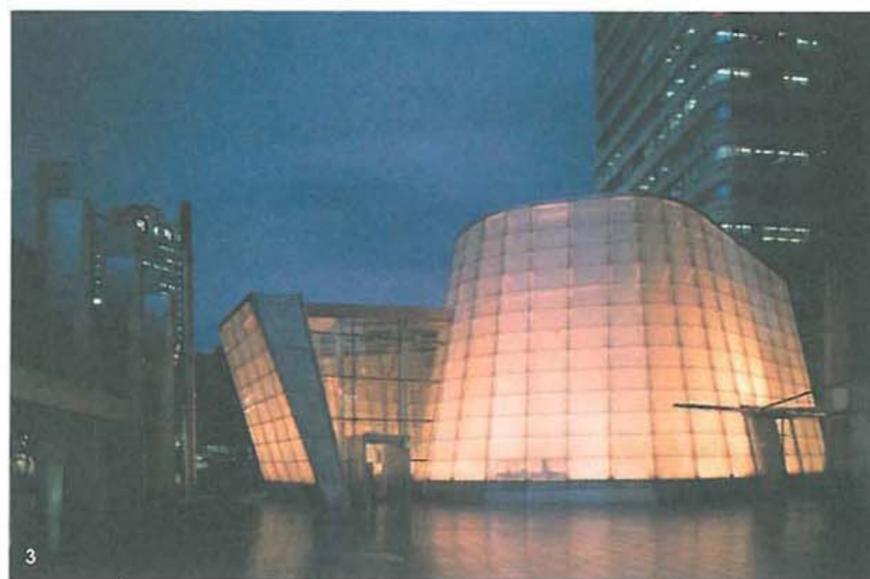
햇살이 투과되는 원형 건물이  
눈길을 끄는 이곳은 뉴욕의  
건축설계사무소인 KDF Kohn-  
Pederson-Fox의 책임  
디자이너이자 파트너인 윌리엄  
페더슨이 로맹의 작품 <성당>에서  
영감을 받아 설계한 것으로,  
특이하게도 미술관에 담을  
작품을 먼저 결정한 뒤에 공간을  
만들었다. 바로 로맹의 작품  
<지옥의 문>과 <칼레의 시민>의  
최적의 상설전시를 위해 만들어진  
것. 본래 야외 전시 작품이지만  
국내에서는 작품의 보존과 도심  
속 소음 차폐를 위해 실내 전시로  
전환했는데, 최대한 야외에서  
감상하듯 자연광 속에서 작품을  
볼 수 있도록 유리로 마감했다.  
빛을 이용해 조각의 양감과 재질의  
육감성 등을 고스란히 살려내 마치  
실외 자연광에서 감상하듯 오롯이  
작품에 몰입할 수 있다. 또한 반투명  
유리로 만들어진 벽 사이사이에는  
투명 유리를 끼워 마치 창문처럼  
보행자들도 내부의 작품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했다. 리움, 호암미술관과  
함께 삼성에서 운영하는 3개  
미술관 중 하나인 플라토  
미술관은 건축물의 스토리처럼  
1999년 '로맹갤러리'로 시작해  
2011년 플라토로 이름을 바꾸고  
재개관했다. '퇴적층', '고원'을  
뜻하는 새로운 이름으로 바꾼  
까닭은 이제까지 쌓아온 거장들의  
성과는 물론이고 앞으로도 우리  
미술계가 축적해갈 예술적 성과물을  
늘 새로운 시각으로 재해석하고  
실험하는 공간으로서 거듭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무겁거나, 혹은 가볍거나  
3.13.6.8

2014년 첫 기획 전시로 정연두의  
개인전이 열린다. 2007년  
국립현대미술관 최연소 '올해의 작가'로  
선정되고, 2008년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올해의 젊은 예술가상'을 수상.  
2012년에는 아트앤옥션의 '가장 소장  
가치 있는 50인의 작가'로 꼽히는 등  
국내외 미술계가 가장 주목하는 한국  
작가. 이번 전시에서는 국내에서 6년 만에  
선보이는 대규모 개인전으로 국내에 많이  
소개되지 못했던 초기 대표작과 함께  
2점의 신작을 새롭게 만나볼 수 있다.

PLATEAU

A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55 삼성생명 1층  
W 일반 3천원  
H 10:00-8:00(월요일 휴관)  
T 1577-7595  
www.plateau.or.kr



- ① 정연두 <Six points>
- ② 정연두 <Tokyo Brand city>
- ③ 플라토 미술관 외관
- ④ 로맹 <지옥의 문>